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 탐색

정성지*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The Roles of Social Farming for Young Beginning farmers

Seong Ji Jeong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orkforce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NU, Korea (1 Gwanak-ro, Gwanak-gu, Seou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field cases of social farming programs for the youth's rural in-migration and to suggest the political and practical directions of the initiative of social farming in Korea. Two cases of social farm were selected and one operators and two participants of each farm were intervie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had a firm priority that social farming is based on farming activities and places, and recognized it as the practice of embracing socially vulnerable groups. Second, the hosts were running their social farms based on their own understanding of social farming, which turns out to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ird, the participants joined the program with the motivation of having an experience of rural life, exploration of career paths, and a need a need of community settlement, restructuring their experi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 of social farming for youth's rural in-migration was suggested.

Key words: social agriculture, young farmer, social farm, case study

1. 서론

근대화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 학계와 현장에 걸쳐 통용되어 왔던 성장주의적 농업 근대화 모델은 농업의 생산적 기능을 고집하면서 먹거리 상품을 생산하여 화폐와 교환하려는 시도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오기를 지속했다(김정섭, 2017). 그러나 이는 한편에서는 경쟁구조의 극대화를 통한 일부 계층의 독식을, 다른 편에서는 다수 농민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야기하면서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를 가져왔다. 그동안 통용되었던 이 모델은 농업의 사양화, 농가인구 고령화, 농업과 농촌사회의 분절 등의 현상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농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살려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황수철, 2018).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이 추구하는 농업·농촌의 지향

점은 눈여겨볼만 한 가치가 있다.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이 농업의 생산적 기능에만 집중했다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재활·교육·돌봄, 노동 통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주목한다(Di Iacovo, & O'Connor, 2009). 이러한 움직임은 농업의 기존 사고 체계를 탈영토화함으로써(김정섭, 2018) 농업을 통한 치료, 교육, 생태적 다양성, 농촌 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고 농촌 문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Garcia-Llorente *et al.*, 2016; Knapik, 2017).

한편, 사회적 농업은 최근 농가 경영주 노령화, 농촌 마을 고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농촌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타개할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임송수, & 송지은, 2017; Garcia-Llorente *et al.*, 2016). 현재

주요어: 사회적 농업, 청년 농업인, 사회적 농장, 사례 연구

* 교신저자(정성지) 전화: 08-880-4896, e-mail: mercyme12@snu.ac.kr

농촌의 청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시점에서 청년층의 유입과 청년농업인 육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농업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마을에서 40세 미만 청년 농가경영주는 지난 15년간 약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청년농업인의 비율이 0.4%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청년농업인의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승계창농(40%)보다 신규창농(60%)이 많은 편이며, 이 가운데 도시 출신에 속하는 청년들은 약 23%로 사실상 농촌에 연고나 영농 기반 없이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에 대한 밀도 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후계농경영 인육성사업,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농의 정착 이후 성장 경로가 부재하다는 점, 현장과 밀도 있게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 신규창농의 경우에는 지원 여건이나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숙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 기존의 지원 사업과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성장 경로를 제시하면서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농업은 청년 농업인 중에서도 승계 기반이 없는 청년 농업인의 창농과 지역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회적 농업이 지향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취약계층의 포용, 교육훈련과 고용,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이슈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이슈로 제기되는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 그리고 적응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여건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 농업인의 창농 및 지역 사회 정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농장의 사례는 이들의 체류 기간 동안 농장 현장에서 긴밀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귀농 탐색과 정착에 대한 결심,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청년 농업인이 농촌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의 연고 없이 정착하려는 청년에게 농촌 현장에서 영농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안면을 트이게 하며, 독립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은 기존의 정책과 사업이 지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청년 농업인 정착 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와 참여 주체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이를 통한 의미 형성 과정을 포착함으로써 한국형 사회적 농업

사례를 발굴하고 청년 농업인의 정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A마을과 B농장은 상이한 주변 여건과 운영 취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면서 공급자라고 볼 수 있는 운영 주체(농장대표)와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참여 주체(청년)의 입장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질문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농업 주체는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운영 주체와 참여 주체가 인식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은 어떠한가?

셋째, 청년농업인의 창농을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의 방안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2.1.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실천

2.1.1.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단순히 생산적인 기능으로만 규격화했던 기존의 틀을 깨어 부수고 생태와 건강,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적 포용, 교육과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의 실천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가치가 식량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윤 추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농업(cultivate) 자체적으로 문화(culture)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정섭(2018)은 이에 대하여 '먹거리 제국'의 탈영토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시도와 실천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실천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농업을 통한 치료, 교육, 생태적 다양성, 농촌 복지 등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면서 지역 문화를 회복하여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Garcia-Llorente *et al.*, 2016; Knapik, 2017).

사회적 농업은 전통적인 농촌개발 형태를 벗어나는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면서 지역기반 사회 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이라는 두 개념을 기반에 두어 지역의 복지체계에 속한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기초한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Di Iacovo, & O'Connor, 2009). 이러한 두 개념을 기반에 두었으나 보다 한정

적으로 접근한 Hassink(2009)는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이면서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에 기여하는 서비스로 구체화하였다. 유럽경제사회위원회(2012)는 Hassink(2009)의 정의를 계승하여 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 실천에 기반을 두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사회 협력(social integration)이라고 보았다. 이와 다르게 사회 통합의 측면 이외에도 치료, 노동통합(Fazzi, 2011) 및 교육 활동을 포함한다고 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Knapik, 2018). 이를 종합했을 때, 유럽사회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은 공통적으로 첫째, 농장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며, 둘째, 고용, 훈련, 치료, 재활 등에 있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으로 종합될 수 있다(Knapik, 2018). 이로써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임파워먼트, 사회 통합, 도시-농촌의 지역 개발, 사회 비용-수익간의 균형 등의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게 된다(Di Iacovo, & O'Connor, 2009; Tulla et al., 2017).

‘사회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국가나 지역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농업의 실천이 국가별 문화, 지역사회 필요, 사회 구조, 운영 취지 등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점(이정해, 2017)을 이해할 수 있다. 유럽 사회에서 사회적 농업 사례는 일반적으로 아래에서 위(bottom-up)로의 방식으로 행해지면서 다양한 실천 사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Di Iacovo, & O'Connor, 2009; Knapik, 2017). O'Connor et al.(2009)은 기관 연계, 활동 내용,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따라 사회적 농업의 형태를 나라별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공공 기관 및 보건 서비스와의 연계 여부로, 연방에서 재정을 지원받는 형태는 주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에서 발견된다. 작업치료의 형태를 지향하는 개인 농장이 운영되는 형태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공공-민간 사회적 농장도 존재하는데, 공공 부문은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으로 대표된다. 둘째, 주요 활동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사회 복지 서비스에 집중하는 형태는 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건강과 치유 활동에 초점을 둔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농업 활동은 덴마크 플랑드르 지역, 의료 부문과 연계된 사회 복지 서비스의 형태는 독일, 영국, 아일랜드 및 슬로베니아에서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형태로는 작업 농장(네덜란드), 사회적 협동조합(이탈리아), 공공기관(독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이행되는 공적 자금의 형태(EU자금 등)나 판매를 통해

형성되는 사적 자금의 형태(프랑스, 이탈리아)등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구분 이외에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은 여섯 가지 특징적인 범주로 구분된다(Sempik et al., 2010; Tulla et al., 2017). 첫째, 농산물 및 농식품산업(유통업, 요식업), 농촌 서비스, 자연 및 농촌 경관 환경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둘째,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사람과 집단의 통합을 위한 목표로서, 참여자가 건강 증진의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직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것 등으로 구체화된다. 셋째, 사회적 취약 계층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지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구조적 실업,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노인, 약물 및 기타 중독, 죄수, 이민자 등), 내지는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자금을 조달하는 협회, 재단 또는 단체로써 건강 및 치료 서비스, 농업 농장에서의 일자리, 토지 및 건물 이용, 지방 정부 지원 및 기타 공공 자금 조달(기금, 사회 보장 비용 보조금 등) 및 자금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비영리 민간 기업, 지자체 행정, 협동조합, 협회 및 재단과 같은 사회적 농업의 법적 지위 및 관리 체계가 존재한다. 여섯째, 사회적 농업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과의 연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은 각 나라의 중점적 의제와 현안을 기반으로 발달된 것이 특징이며, 사회 구조와 사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이슈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 상이하다. 이러한 이해 없이 사회적 농업을 접근하게 되면 특정 유형의 실천을 우선 또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 농업은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 치유 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의 용어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데(윤성희, & 윤항미, 2018), 농업활동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활동을 병행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해 농촌 스스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농업 활동으로 정의된다(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8). 구체적인 기능은 노동통합, 돌봄, 직업교육훈련(김정섭 등, 2017b)이나 건강, 교육훈련, 사회통합과 포용, 지역개발(김찬양, 2017),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 돌봄, 교육(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8) 등 일반적으로 돌봄, 고용, 교육 등의 형태로 요약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농업은 개념적 측면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활동이라기보다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농업 실천 행위이며, 기능적 측면에 있어 농업 활동이나 농산물을 소재로 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적 농업(Community-based Social Agriculture)은 최근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Tulla et al., 2017; Garcia-Llorente et al., 2016). 사회적 태도, 생태적 인식, 환경적 행동 등을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보다 근본적인 교육사회를 요구하며(Kilpatrick, & Falk, 2001; Smith, & Sanchez, 2011), 이러한 실천이 가능한 사회적 농업 현장의 교육적 기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현장 사례(Oaza Pod Lasem)를 기반으로 아동, 청년, 성인, 노인 등의 다양한 연령층과 세대를 통합하는 사회적 농업 모형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Knapik, 2017; 2018). 예를 들어, 기술과 소양을 갖춘 시니어 농업인은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협력적 활동을 가르치고 수행함으로써 세대 간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 동시에 농업과 자연이라는 소재는 시민 교육, 환경교육, 삶의 질, 건강한 먹거리, 지역 문화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천 현장에서 발견된 모델은 공공 기관이나 비공식 기관, 가정이나 농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방법, 교육 체계 등을 권고함으로써 견고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면서 세대 간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어 활발한 논의 중이다.

2.1.2. 한국에서의 사회적 농업 실천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사회적 농업은 어떻게 정착하여 실천되고 있는가? 그동안 성장주의적 농업 근대화 모델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농업 소득의 정체, 농촌사회 분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야한다는 주장이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황수철, 2018). 이와 함께 국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일자리, 양극화, 고령화 등의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와 포용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농업은 농촌사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을 얻게 되었고(미래정책연구실, 2019),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현재 국가 지원 사업의 형태로 실천되어오고 있다(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9)¹⁾. 사회적 농업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생산 중심 농업의 탈피와 농업의 가치의 발견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이 현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여 작용한 것

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농업이 지닌 고용, 치유, 사회적 통합, 교육훈련, 지역개발 등의 이슈가 사회적 경제와 포용 성장의 지향점과 유사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1차(2018) 9개소, 2차(2019) 신규 9개소, 3차(2020) 신규 12개소 및 권역별 거점농장 4개소를 선정하여 총 30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형태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인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되면 1년간 6천만 원 씩 총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강사비, 재료비, 교통비 등의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2019a; 2019b; 2019d; 2020).

그러나 사회적 농업 추진 사업 속도에 비하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며 여전히 정의에 대한 합의나 보상체계 등의 의견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사회적 농업이 소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추진과제에 포함되었으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법을 제정하거나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것이다(이수경, 2019). 예를 들어, 학계나 실천 현장에서의 각 주체에 따라 사회적 농업에 대해 이해하는 개념이 상이하다(김정섭, 안 석, 이정혜, & 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 관련 연구자, 종사자, 공무원, 사회복지전문가, 정책 연구자 등 40여명이 이해하는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분석했을 때, 사회적 농업의 실천 범위, 사회적 농업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타당성, 사회적 농업의 농정 추진의 적절성 등과 관련하여 입장마다 상충되는 견해가 존재하였다(김정섭 등, 2017). 이는 한국형 사회적 농업의 지평이 포괄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존재하나, 지원 방법과 인정 과정 등 구체적인 장면에서는 합의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농업육성법을 논의하는 것은 프로그램 공급자-소비자라는 프레임에서 농업을 상품화하는 또 다른 형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사회적농업연구회, 2019).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농업 관련 학자 및 현장가 역시 현 시점에서 사회적 농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김정섭 등, 2017). 오히려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과업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작업, 그리고 실천현장의 경험과

1) 사회적 농업은 81계 국정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부분에 ‘사회적농업시범사업 및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추진’에 포함되어 있음(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9).

실전을 통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사회적농업연구회, 2019). 이를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되, 국내에서 실천되는 사례를 기반으로 이것이 지닌 사회적 농업과의 공통적 특성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이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충분한 답론을 거쳐 발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2. 사회적 농업과 청년 농업인

2.2.1. 청년 농업인 농촌 정착 현황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재, 청년층의 농업 및 농촌으로의 유입과 육성은 농정에 있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농업인의 유입률이 낮은 원인은 농촌사회와 인프라의 침체, 소규모 농업 지양 현상, 농지 기반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나며(White, 2012), 이는 농촌의 세대문제와도 연결된다. 40세 미만 청년 농가경영주는 2000년대 9만 1천명이었다가 2010년 3만 2천명, 2015년 1만 4천명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15년간 약 11.6%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2025년에는 전체 농가 중 청년농업인의 비율은 0.38%(3,375호)로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마상진, & 김경인, 2017).

이와 마찬가지로 40세 미만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은 2005년 1.19명이었으나 2015년 0.4명으로 현재 청년이 평균 1명도 살고 있지 않으며, 면지역으로 범위를 좁히면 2005년 0.88명에서 2015년 0.24명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청년 농업인 비중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연간 1,000명 이상의 추가 유입이 필요하다(마상진, & 김경인, 2017).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마상진, 정은미와 김경인(2017)은 점차 감소하는 청년 농업인의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3년간(2014-2016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5,55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유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출신 배경에 따라서 농촌 출신이 77%, 도시 출신이 23%로 농촌 출신이 도시 출신보다 약 2배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귀농 여부에 따라서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선주민은 40%인 반면 귀농인 60%로 나타났는데, 귀농인 중에서 도시 출신은 23%, 농촌 출신이었다가 도시생활을 경험한 응답자는 37%로 구성되어 있었다. 청년 농업인 가운데 선주민보다 귀농인 인구가 더 많은 편이며, 귀농인 중에서 도시 출신에 속하는 23%는 사실상 농촌에 연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결과는 승계 창농과 신규 창농의 비율이다(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승계 창농은 40%를 차지하였는데, 농촌에 거주하면서 승계하는 응답자 20%, 농촌 출신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농하여 승계한 응답자 16%, 도시 출신이나 조부모 등 기반으로 승계한 응답자 4%로 구성되었다. 반면 신규 창농은 60%를 차지하였는데, 농촌 출신이나 기반 승계가 없이 신규로 창농한 응답자 21%, 농촌 출신이나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신규로 창농하게 된 응답자 20%, 마지막으로 도시 출신 이면서 신규로 창농을 하게 된 응답자 19%로 구성되었다. 청년 농업인 가운데 승계 창농인 보다 신규 창농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청년 농업인이 영농 기반 없이 농사를 시작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2.2.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농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고, 농대, 농수산대학 재학생이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후계농이 아닌 경우 귀농 예정 청년인에게는 귀농창업지원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2019c)에서는 농고농대육성사업(1972~),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1981~),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2007~), 귀농귀촌지원사업(2009~), 청년귀농 교육농장(2017~), 신규취농지원 농지매입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2012~), 신규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구의 대상이 되는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육성 정책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려 한다. 지원 대상은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이며 이들은 본인이 작성한 5개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된다. 이는 승계 여부나 영농 기반에 상관없이 농업에 대한 개인적인 의지와 비전을 보조가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정착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독립경영 3년차까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과 함께 영농 실습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창농 전에는 임대농장을 통해서 경영실습을 익히거나, 선도 농가에서의 실습 등의 사전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 농지 및 자금과 관련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최우선으로 임대할 수 있고(한도 3억), 농신보

보증 한도도 최대 3억까지 얻을 수 있다. 정보는 청년창업농의 성장을 위하여 법인 창업 및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탐담위 법인 창업 활성화), 농식품벤처 펀드를 통하여 청년 창업농 투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청년 창업농은 창업 전 준비기부터 창업 후 베테랑 농업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장시간 동안 교육, 농지, 자금, 정보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청년농 성장경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마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농업인력육성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소득 창출, 개인 발전, 농촌 정착 등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농이 농업 및 농촌을 바꾸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장과 밀도 있게 연계되지 못하는 편이다. 농업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영농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귀농귀촌교육은 양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의무교육 규정으로 인해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마상진, & 김경인, 2017). 셋째, 신규 창업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승계 창업의 경우, 부모나 지역 지인 등을 통하여 지원 사업을 받기까지 충족되어야 할 여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반면, 새롭게 창업을 하려는 청년농업인의 경우, 지원 사업 충족 여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고, 사업 행정 및 용어 등을 처음 접해보는데 비해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농기술, 정착자금, 농촌생활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밀도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소규모보다 대규모 농업을 지향하는 농정 분위기 가운데 상대적으로 농지나 농자재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은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White, 2012). 예를 들어, 청년들은 대규모 단일 작물을 키우는 대형농업법인에 소속된 임금근로자나 계약직 농업인으로 머물러있거나 이미 포화된 도시의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낡은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신규 청년 농업인이라면, 상대적으로 기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소규모 영농 활동의 지원이나 질 좋은 서비스, 경쟁력 있는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IFAD, 2010).

2.2.3.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

기존의 지원 정책을 살펴봤을 때 농촌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정착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 기존의 지원 사업과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농업기술을 익히면서 농촌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사회적 농업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청년층의 귀농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농업을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면 운영 목적은 교육훈련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공간은 농촌에 속한다. 청년층 대상의 교육훈련은 주로 복지나 치료 측면의 기능이 주목 받는 사회적 농업 논의에서 많이 다루지지 않은 사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Di Iacovo, & O'Connor, 2009) 구체적으로 청년층 고용을 대상으로 다루진 사회적 농업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 농업의 대상이 주로 장애 등 특수한 계층에 맞춰져있어 청년층이 취약계층에 포함 여부 등에 다양한 이해가 공존하는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청년농업인 대상의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농업을 살펴보면,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은 농업이나 농촌을 접해본 적이 없거나 영농 기술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거나 농촌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김정섭 등, 2017). 대상 측면에서 청년농업인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 청년은 농촌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영농 기술, 정착 자금, 농촌 생활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일반농업인이 비해 부족한 편이다. 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업, 결혼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년층 자체가 사회 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셋째, 공간 측면에서 사회적 농장은 도시나 도시 근교가 아닌 농촌에 위치하면서 청년 농업인이 농민 및 농촌 구성원으로서 농촌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 대상의 교육훈련이 사회적 농업의 한 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며, 사회적 농장 가운데 소수이지만 해당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 운영 사례는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는 다양한 연령층을 통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적 사회적 농업 모델(Knapik, 2017; 2018)의 또 다른 실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유럽 사회가 아닌 국내 현장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포착하고 발굴함으로써 국내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내 농정에서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은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중요한 의제로써, 사회적 농업의 실천 사례는 농촌 현장에서 밀도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기존 청년 농업인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농장 중 일부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청년 인재 육성의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하게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도 각 운영주체가 이해하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운영 취지가 상이하며, 사회적 농장의 지리적 여건, 네트워크 등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모두 사회적 농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거나 농업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농장의 운영 주체의 프로그램 운영 계기 및 과정과 참여 주체의 프로그램 참여 계기 및 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적 농장의 청년 농업인 정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 가운데 청년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으로 선정하였다. A마을과 B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했던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운영 경영체로 선정되어 청년의 농촌 공동체 정착 또는 농업인 육성을 취지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사전 연락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대표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면접, 자료 공유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기에 연구 현장을 최종 선정하였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맥락 속에서 현상을 조사하는 경험적 연구 전략인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사례 연구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깊이 있게 기술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Yin, 1994).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의 실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한 청년 참여 주체의 실천,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 사회적 농업 운영 현장에서 드러나는 주체들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한국에 소개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의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가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은 현상과 맥락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해 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례란 한 사회적 농장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이다. 각 사례는 운영 주체가 이해하는 사회적 농업의 정의에 따라 운영 취지에 차이가 있으며, 농장의 위치나 품목, 주변 여건 등에 따라 운영 방법 또한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참여 동기 또한 다양하며, 동기에 따라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도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례의 인적·물적·체제적 여건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두 개의 연구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3.3.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사례연구 전략 및 집중 집단 인터뷰를 활용하여 맥락 속에서 현상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사례를 분석하는데 수집했던 주요 자료는 1:1 심층 면접, 집중 집단 인터뷰(FGI), 인터넷 게시물, 농장 소개 책자(단행본), 농장 소개 발표 자료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1:1 심층 면접과 집중 집단 인터뷰를 병행하였는데, 심층 면접은 해당 대상에 보다 집중된 질문을 통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며, 집중 집단 인터뷰는 비슷한 맥락에 있는 대상이 서로의 응답을 청취하며 생각을 확장하거나 서로의 응답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심층면접과 집중 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운영 주체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점, 참여 요인 등을 알아보고, 자료를 통해서 연구사례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해 알지 못하였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참여 후기 또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 인터뷰를 기준으로 5개월 이후 개인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총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5월 1일까지였으며, 참여자마다 1시간-2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 1> 참조).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참여,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의 조정 과정,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은 프로그램 공급자

〈표 1〉 연구 사례별 심층면접 및 집중 집단 인터뷰

연구사례	참여자		
	성명(가명)	나이(연령대)	비고
A마을	정동진	50	운영자
	전도담	20	참여자
	이성훈	20	참여자
B농장	박태주	50	운영자
	김호성	20	참여자
	이지민	30	참여자

*연구사례명, 참여자 성명 모두 가명으로 명기하였음.

〈표 2〉 사례 연구 분석 틀

구분	주요 질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대한 인식 ▪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 운영과정 (운영주체 대상) 운영 계기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기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과정
프로그램 운영과정 (참여주체 대상) 참여 계기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 계기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 과정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의 조정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 동기(수요) - 운영 취지(공급) 간의 일치와 불일치에 따른 조정 과정
청년층 정착을 위한 제언	▪ 청년층 대상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제언

라고 볼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는 프로그램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공급자의 운영취지와 수요자의 참여 동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공급과 수요의 조정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천 주체의 내용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 내용을 추출하였다(〈표 2〉 참조).

4. 연구 결과

4.1. 연구 사례 소개

4.1.1. 농업회사법인 A마을

A마을은 충북 제천시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운영해왔다. 이 농업회사법인이 위치한 덕산면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 이 가운데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등 약 50여 가구가 덕산면에 귀농

귀촌해 살고 있다. A마을 경영주인 정동진(가명)은 본래 서울 강남에 위치한 사립 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폐해, 생산자의 사유화 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 마을 공동체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농촌 역시 고령화와 도시로의 이주를 경험하면서 지속가능성이 점차 손상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대안학교로 교편을 이동하면서 마을 공동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도시 마을 공동체에서 학교 운동을 전개하다 농촌 마을 공동체로 옮겨 지금의 A마을이 자리 잡은 충북 제천의 덕산면으로 이주하였다. 덕산면에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교직생활을 하면서 대안 교육과 농촌의 삶에 관심을 두는 학부모 등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설립하여 협동조합 연구모임, 덕산포럼, 토지 공유화 운동, 학교 텃밭 등의 마을 활동을 전개하였다. 마침 정부가 2017년 사회적 농업 시범 농장을 선정한다는 공고를 접하게 되어 기존에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지원하여 선정되어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는 초기 농촌공동체연구소 활동을 통해 농촌마을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하다가 2019년 A마을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A마을의 설립 취지는 청년이 농사를 즐기면서 자급하고 필요한 것은 만들어서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창작하는 마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다. A마을 대표 정동진은 극심한 자본주의 경쟁 가운데 취직, 결혼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도시 청년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농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A마을이 청년정착플랫폼의 기능을 실현하여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A마을은 약 5,000평의 공유지를 기반으로 영농활동을 하고 있으며, A마을이 위치한 덕산면 마을 공동체의 누리마을빵 카페, 누리꿈터지역아동센터, 작은집건축학교, 참좋은농특산물 곳간의 인프라와 연계하여 마을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A마을에는 4명의 청년들이 상주하고 있어 오전에는 약 4시간 동안 농사 일을 전담하고 오후에는 배움터를 통해 영농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농사일은 농사실무를 담당하는 멘토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논, 밭, 화훼, 약초 등을 재배하며, 종종 대안학교 농사작업장과 교류하거나 지역아동센터의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마을 내 협동조합을 통해 직거래로 판매된다. 청년의 일과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배움터에서는 상주하는 청년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5-6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분기별(3개월)로 운영된다. 배움터 강좌는 방송영상, 독서토론, 언어, 문학, 예술, 체육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며, 강사는 인근에 귀농귀촌한 지인이나 지역인 등으로 구성된다.

4.1.2. B농장 농업회사법인(주)

두 번째 연구 사례인 B농장은 경북 청송군 현동면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역 특산품인 사과를 생산하는 농원이다. B농장을 운영하는 부부는 주 작목인 사과 품종 홍로, 부사를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 사과즙, 말린 사과, 발효 식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B농장 부부는 영농만큼이나 학습에 대한 열의가 큰 편인데, 전국 최초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촌관광지도사, 팜파티플래너 자격을 취득하고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현장교수로 재직할 경험이 있다. 농장은 이에 맞추어 단순히 생산을 하는 곳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홈스테이, 대학 동아리와 연계한 엠티, 농장 캠프 등의 팜파티를 개최하여 숙박, 사과 따기, 사과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를 재배할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B농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주요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농장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작목에 부가 가치를 더하여 주요 고객층을 확장하고 있다.

B농장 대표 박태주(가명)는 지역 대학의 원예학과를 졸업하고 사과를 주제로 석사 학위를 마친 뒤 2001년 사과가 유명한 청송에 정착하였다. 청송에 정착하게 된 데에는 사과가 유명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때문에 농업인으로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마주할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B농장 부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이러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B농장에는 현재 3명의 청년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창농을 결심한 이들이다. 농사 일이 붓비는 수확 철, 동일한 농과 대학 출신인 부부는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후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계기로 농업인이 되고 싶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 이들에게 멘토 역할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을 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었다. 현재 B농장은 농장 일의 일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의 청년들은 농장주와의 일상을 함께 경험하며 영농, 창농, 농촌 일상에 필요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해가고 있다. 이들은 향후 개인 경영체로 독립하기 위하여 청년이 구성원인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영농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4.2. 실천의 장에서 인식하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

4.2.1. 농사 활동 기반의 사회적 취약 계층 포용

사회적 농업의 개념에 대하여 A마을과 B농장의 운영 주체는 공통적으로 농사 활동이 기반이 된 사회적 취약 계층의 포용의 실천이라고 보았으며, 이 가운데 사회적 취약 계층에 청년층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약 계층인 청년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사회적 농업은 “공간적 약자인 농촌과 사회적 약자인 청년이 만나 농업 농촌을 매개로 서로를 살리며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과 삶이 되도록 하는 농업을 매개로 하는 활동(김정섭, 2017)”으로, 농촌과 청년이 만나 상호적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한다.

“농사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거고 여기에 결합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배제된 계층수저 청년도 배제된 거고, 노약자, 사회적 기업에서 말하는 소위 취약계층. 이민자, 이런 사람들이 주류에

〈표 3〉 연구 사례 소개

구분	A마을	B농장
위치	충북 제천시	경북 청송군
설립연도	2002	2001
운영 형태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형태	농촌 마을 공동체형	독립 가족농가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 만들기 ▪ 청년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기로운 농장생활 ▪ 농촌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잘해야 한다
키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정착 플랫폼〉 운영) ▪ 농촌 생태계 복원 ▪ 청년 ▪ 대안적 배움과 삶터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과 상자 플랫폼’ 운영〉 ▪ 농사(사과) ▪ 다음세대, 청년 ▪ 지역 공동체
역사	대안학교 학부모의 귀촌 및 귀향 →공부방, 도서관 등 마을 활동 시작→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농업 시작	박태주 부부 청송으로 귀농→직거래 시작→00대 농사동아리와의 교류→사회적 농업 시작
공간	사무실 30평, 청년숙소, 직영농장	사과농장, 협동조합 농지, 숙소, 청춘상상방 등

서 나를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된 거잖아요 이 배제된 사람들과 농업의 여러 기능들이 만나 농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동진)

한편, 참여자 전도담(가명)은 사회적 농업에 대하여 개념이 모호하지만 어떠한지 농사 활동이 주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육, 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행위가 오히려 농업의 본질을 흐릴 수 있음에 경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농업 실천가 및 종사자는 사회적 농업을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보다는 농장에서 주도하는 직접적 농업 활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정섭 외, 2017).

“저는 농사라도 짓고 있으면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겠는데 판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가 들러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름이 사회적 농업이면 그 중심에 농업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돌봄이나 사회 복지 쪽으로 빠져버리는 것 같았어요... 중심이 농사였으면 좋겠어요 농업이 아닌 것들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했던 게 오히려 농업의 본질을 잃게 한 것이 아닌가...” (전도담)

4.2.2. 청년층은 왜 사회적 취약 계층인가?

4.2.2.1. 사회구조적 약자인 청년 vs. 농업 기반이 부족한 예비농업인

앞서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은 사회적 농업을 농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포용의 실천으로 보았다. 이 가운데 운영 주체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청년이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먼저, A마을 대표는 몇 년 전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하였던 수저계급론 논의에서처럼 청년층 대부분이 직업을 탐색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등 사회 일원으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농업은 농촌도 약자고 청년도 약자다 한국 사회에서. **흙수저에 있는 청년은 약자다** 그렇다면 이 약자인 청년과 이 공간적 약자인 농촌이 만나 농촌과 청년을 같이 살리는 부분이 뭐냐.” (정동진)(볼드체 연구자 표시, 이하 상동)

반면, B농장 대표는 사뭇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일반 청년은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은 도시에 자리를 잡고 사는 청년이나 가족 및 친인척의 기반으로 농업을 승계하려는 청년과는 다르게 농사를 짓고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정보적·정신적 기반이 부재하여 문턱이 높게 느껴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 계시면서 농사짓는다 하면 나를 만날 하등의 이유도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알든지 자기가 클 때부터 알았죠 그런데 이 청년들은 도시에서만 자랐고 시골의 사정을 전혀 몰라요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려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데 돈 있다고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농업이...(중략)...도시에 있으면 약자가 아닌데 시골
에서 농사짓고 정착하려고 하니 약자이다..” (박태주)

이와 같이 사회적 농업 운영 주체가 사회적 취약 계층에 청년
층이 포함한다고 인식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사회적 농장
을 지원하는 제도 및 사업의 요건인 사회적 취약 계층 대상
을 충족시키기 위한 데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청년들이 여기 와서 농업을 하고 살겠다는 데
결심은 있으나 기반이 없으니 분명히 사회적 약자이다
약자로서 인식하고 정책으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똑같이 지원해 달라 만성 정신질환자 도와주듯이 청년
들에게도 농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어필을 하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부터가 사회적 약자에 팔호에
기반 없는 청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박태주)

4.2.2.2. '사회적' 이미지가 가져올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한편, B농장 대표 박태주는 '사회적'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낙인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사회 포용' 측면에서 '사회적'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약자'라는 개념을
강화시켜 실패감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이라고 할 때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어서 프레임을 두고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마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하면 취약
계층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낙인 같은 게
있잖아요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넓은 의미에서는 포용
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가 아프거나 약점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보게 되는 게 사실은 서운하죠”
(박태주)

실제로 예비 청년농업인인 전도담은 청년층인 자신을 취약계
층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에게 있어 농
촌을 좋아하는 것이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이유로 설명되기 어려
운 부분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사회적으로 독특한 현상으로 해석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농

업이 다른 직업 중에 하나로 이해되기를 바랐다.

“왜 청년층이 취약계층이자 왜 어떻게 보면 도움
이 필요할 수 있는데 왜 이 표방하는 게.. 왜 우리가
취약계층이자 나는 농촌이 좋고 농사하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왜 취약계층이 되어있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취약계층이 아닌데..” (전도담)

4.3. 공급자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4.3.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계기: 농촌 사회와 이웃 에 대한 책임감

두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을 실천하여
청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서로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각 사례를 둘러싼 지리적 여건과 운영 배경,
운영주체가 인식하는 사회적 농업 및 청년층에 대한 이해의 차
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에 두 사례에 대한 검토와 비교가 필
요하다.

4.3.1.1. A마을: 농촌의 지속가능성 복원을 위한 실천

A마을 사례에서는 운영 주체가 가지는 문제의식, 그리고 그
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써 사회적 농업이 가능하고 있었다. 대
도시에서 한 중학교의 교사로 11년간 재직했던 정동진은 재직
생활 중에도 “자본에 종속된 소비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문제의
식을 지니고 있었다. “소모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촌마을공동체를 구상하였고 사회적 농업 시
범 사업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다.

“농촌 또는 자연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고 지속가
한 사회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이 농촌 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입장에는 농촌이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사회적 농업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정동진)

A마을의 비전인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유럽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 실천의 한 형태(Knapik, 2017; 2018)로 볼 수 있다. A마을이 추구하는 사회적 농업의 가치는 보다 근본적인 삶에 대한 성찰과, 이러한 삶이 가능한 교육 사회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데 있으며 다양한 활동 주제와 다양한 활동 내용이 어우러진 운영 방식을 추구한다.

4.3.1.2. B농장: 청년 예비농업인의 창농 수요 발견

반면, B농장에서는 청년 대상층의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농업이 기능하고 있었다. B농장 대표 박태주는 평소 농장에 일손을 거들러 오는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을 때 마주하게 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본인이 연고 없는 타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과 수완을 전수함으로써 청년예비농이 보다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도로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였다. B농장의 사회적 농업 운영 계기는 주변 상황의 문제를 포착하고 개인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점을 고민하다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게 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집에서 일을 도왔던 친구가 여기에 기반도 없고 한테 여기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한번 같이 고민하는 상황이었어요...이 친구들은 경북에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죠 **농사짓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인데 애들은 가진 것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시작했다는 나처럼 10년 이상 세월을 허송한다는 걸 알죠”
(박태주)

종합했을 때, A마을과 B농장은 모두 청년의 정착을 위하여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상이한 구도를 보인다. A마을은 운영주체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반면 B농장은 청년의 창농 수요를 발견하고 이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취지는 각 주체가 사회적 목표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A마을은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청년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B농장은 청년의 영농 기반과 마을 정착에 주요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취지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4.3.2.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활용

4.3.2.1. A마을: 마을연계 공동학습형

A마을에서는 농촌이 지닌 물질적 자원을 기반으로 귀농·귀촌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 및 실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A마을작업장으로 영상미디어센터, 한끼식당, 건축학교, 나무공방, 영농, 직거래장터, 디자인작업장, 온라인쇼핑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A마을 오후 일상의 주축이 되는 배움터교실에서는 방송 영상, 독서 토론, 언어, 동양고전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작업장과 배움터교실은 대부분 지역 인근의 재능인이나 귀농귀촌한 지인 또는 지역인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들은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A마을: 문제의식과 실천적 대안



B농장: 청년의 창농 수요 발견과 공급

<그림 1>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의 운영 계기

다. A마을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농사일을 하지 만(오전), 농사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정착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다.

“생활해보고 좋으면 정착하고 본인이 안 좋으면 안 정착해도 되는 거죠...우리는 농촌에 가서 처음부터 농사를 지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 농촌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동진)

“시골에는 농사짓는 사람들 말고도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는 마을 목공 소도 있고 영상 미디어 센터도 있어 영상도 배울 수 있고 빵 카페가 있어서 제과제빵도 해볼 수 있고 울타리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와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전도담)

4.3.2.2. B농장: 농장주도 생활밀착형

반면 B농장 대표는 창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른 바 ‘슬기로운 농장 생활’ 과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B농장 청년들은 농장에서의 일과 자체가 배움의 연속이다. 대표 박태주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본인의 일을 잘 가꾸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자 사과를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하는 게 여기서 시행착오 줄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애들이 농사 짓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해요**” (박태주)

이에 B농장에서 청년들은 생활 밀착형으로 농사와 살림에 관련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사과 재배, 관리, 수확, 선별, 저장, 가공, 판매 및 홍보 등의 영농기술뿐 아니라 농촌살이에 필요한 배관, 시공, 용접, 인테리어 등도 함께 배우고, 양봉, 제빵 등의 기술을 익히고 있다. 몇 년 후에 완전 독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창농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농지와 주택 정보도 함께 모으고 있다. 단, 농장에서 제공할 수 없으나 필요한 내용인 경우, 청송 지역 및 지역 외 농촌 관계자로 구성된 비빌언덕멘토단을 결성하여 도움 줄 인적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멘션, 영농조합법인, 음식연구회 등의 관계자를 통하

여 제빵, 팜파티, 커피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4. 수요자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

4.4.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 계기

4.4.1.1. 농촌 생활의 경험과 진로 탐색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중 일부는 농촌의 정겨운 이미지와 여유로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다음은 B농장에서 3개월간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이지민(가명)은 도시에서 자랐으나 농촌에 관심을 가지면서 몇 년간 농사 동아리에서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해오다가 ‘진짜’ 농촌에서 농촌살이를 경험하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농업이 뜨는 분야라고 생각했었고 슬로우 라이프와 같은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 전에 개인적으로 농사동아리를 했던 적도 있고요 **농촌 생활을 본격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지민)

이와 비슷하게 이성훈(가명)은 큰 위험 없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A마을에 인접한 간디학교 학생으로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농촌 마을 공동체를 찾게 되었다. 더욱이 이곳은 지원 여건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쉬면서 경험하는 공간으로써 그에게 참여할 유인가를 제공하였다.

“진로 고민을 하다가 방향을 틀어볼까 하는 찰나에 오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도시 삶이 좀 지치고 사람 관계도 지쳐서 쉬러 왔다가 농사를 하면서 흥미가 생겼어요...**갓 제대한 성인 남자에게 되게 조건이 좋은 게 여기는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빠져 나가지도 않으면서 꾸준히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이성훈)

4.4.1.2. 창농을 위한 부드러운 연락처

반면, 농촌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게 창농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도 존재하였다. 도시 출신이면서 농대 출신인 김호성(가명)은 갖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다가 친구를 통해 B농장에서 농사일을 접하게 되면서 농업에 대한 전망과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착을 결심하였다. 마침 B농장 대표 박태주가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그는 이곳에서 상주하여 2년째 농사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사과 농장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다른 일 이전까지 해왔던 아르바이트보다 힘들다고 느끼진 않더라고요 사과농장에서 실습하면서 사과가 노동력을 적게 투자해도 수확이 잘된다고 생각이 들어 2017년 말에 이곳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했어요” (김호성)

사회적 농업 시범 농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한 도시 청년에게 부드러운 연락처, 실패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비밀 언덕과 같은 공간이었다. 전도담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농촌에 대한 정겨움과 그리움이 농사일을 하겠다는 동기로 작용하였으나 막상 정착하려는 연고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충북 제천의 농창업지원센터에서 농지를 마련하는 등 도움을 얻었으나 정착 과정에 있어 보다 긴밀한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고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그는 A마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정착하는데 윤희유 같은 역할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사람들에게 저처럼 시골에 가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패했을 때 받쳐줄 수 있는 안전망도 없으니까요...**어떻게 하면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부드럽게 정착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것을 다른 청년들은 어떻게 안 겪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안일 거 같아서 왔어요**” (전도담)

4.4.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여 과정

4.4.2.1. 위험 없이 다양한 경험하기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 청년의 진로 탐색과 농촌 정착에

주안점을 두는 A마을의 경우,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오후 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제공된다. 오전에는 4시간의 농사일을 하고, 오후에는 배움터 교실의 강좌를 통하여 자신이 관심 있는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배움터는 청년이 원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되는데, 귀농귀촌인, 지역인, 지인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강사 없이 비공식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강사를 초청해서 마을 사람들이랑 배우는 데 사실 배움터는 전문적인 교육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배워보자는 마음이 맞으면 강사 없이도 두세 명이 서로서로 동아리처럼 배우고 현장 견학 가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훈)

이와 같이 A마을에서는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적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덕산면의 마을 생활을 경험하도록 하여 농촌마을공동체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4.4.2.2. 온 삶으로 부딪치며 배우기

B농장은 동이 튼 다음부터 동이 질 때까지 슬기로운 농장생활이 지속된다. 비교적 단순한 일과의 반복을 통해 청년들은 농사일의 한 사이클을 배울 수 있다.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 없이 농장의 일상 속에서 전수되는 멘토의 지침과 조언, 필요시마다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서서히 창농 준비를 하게 된다. 3개월 동안 체류한 이지민은 이러한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가 봤을 때 그게 10년이라면 타지(他地)인이 정착하는 베이스를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착을 결정하고 나서 기반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주셨어요” (이지민)

4.4.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참여 결과

그렇다면 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의 관점에서 이들은 농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으면서 예비농업인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해

가고 있었다.

4.4.3.1. 농촌에 대한 새로운 관점

먼저, 청년은 농촌의 여유로운 이미지와는 다른 생업으로의 농업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촌의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주민은 이와는 다르게 바쁘게 돌아가는 B농장의 일과를 경험하면서 생업으로의 농업 현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농촌은 도시에서의 바쁘고 힘든 삶에서부터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치유(힐링)의 공간이었으나 막상 내려와서 경험해보니 농사일을 전업으로 하는 삶의 고됨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농촌은 농사일이 생업이 아닌 사람들이 농촌을 향유하면서 누리는 공간이었음을 깨닫고 생업으로써의 농업인의 생활 방식을 온몸으로 경험하였다.

“여기 오게 되니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농촌과 삶의 농촌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생활로서의 농업 농업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곳에 와서 농업인의 일상이 어떠한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지민)

한편, 다른 청년은 바쁜 농사 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농촌의 다양성을 발견하였다. 김호성은 B농장에서 다른 청년 참여자와 함께 ‘청년과짜방’을 운영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어르신 사진 촬영, 면마스크 제작 및 나눔, 멘토 강연 장소로 활용하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창농을 목표로 보다 부드러운 연락처를 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도담의 경우, A마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촌이 지닌 다양성과 강점을 깨닫게 되었다.

“교육, 돌봄, 케어 그런 쪽으로 농촌에서 해줄 수 있는 강점이 보이더라고요... 굳이 농사짓는 걸 떠나서 농촌이 가진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이 트이게 되었어요 농사를 짓느라 못 봤던 농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치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크죠” (전도담)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농촌을 자신의 진로로 연계하여 농업과 관련된 진로를 설계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영상 제작을 진로로 두고 있는 이성훈은 A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농촌

의 다채로움을 콘텐츠로 만들어 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농촌에서 하는 일은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느긋는 곳하잖아요 분위기가 급변하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틈새시장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본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많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요” (이성훈)

4.4.3.2. 예비농업인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창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예비 청년농업인들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업인으로써 익혀야 할 영농 기술, 청년농에게 해당되는 지원 사업 내용, 창농에 필요한 토지 구입, 주택 마련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사일의 순환 속에서 영농활동의 체계를 익히고, 가까이 있는 멘토를 통해 때마다 필요한 정보와 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청년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다.

“여기서 배운 것은 우선 영농활동계획을 단계별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영농기술도 많이 익힐 수 있었어요” (김호성)

또한, 청년들은 농사일 뿐 아니라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익힌다. 마을 배움터의 발효 수업에서는 생산한 작물을 가공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공방의 사진 촬영 수업에서는 동영상으로 농산품을 홍보하는 방법을 익히고, 홈페이지, 박람회, 직판장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판매하는 방법을 배운다.

“발효수업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말려서 청도 담궈 보고 술도 만들어보고 썰도 만들어보고.. 해서 하나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을지 말이죠 직판장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팔고 어떻게 배치해야 사람들이 잘 파는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죠” (전도담)

그 외에도 청년들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지원하는 절차와 수행 과정도 익히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경영 육성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은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농업에 계속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영농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있으며 주변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승계농의 지원을 장려하는데,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 수립·집행·상환, 경영 장부 작성 등의 지원 서류를 갖추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예비농업인을 꿈꾸는 청년에게 농사일의 생리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 사업과 신청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는 멘토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멘토의 도움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승계농이 아닌 경우, 예비농업인은 정착지 선정과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과 같이 농장에서 밀접한 경험을 접한 청년들은 재능을 기부하거나 농사일 또는 농촌살림에 대해 자문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지역 공동체에 정착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향후 지역 사회에 독자적인 경영체를 이루려는 계획으로도 연결되었다.

4.5. 프로그램 수요와 공급의 조정 과정

한편, 참여자의 참여 계기(수요)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공급)가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살펴 보았듯 공급자인 운영 주체는 저마다 상이한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운영 기반과 운영 방식, 운영 목표 등이 저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편, 수요자인 청년 또한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다양한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요와 공급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절에서는 프로그램의 참여 계기와 운영 취지와 일치와 불일치 현상이 어떻게 조정되고 적응되어 가는 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4.5.1. 운영 취지와 참여 동기의 일치: 탐색, 연대, 그리고 실행

4.5.1.1 영상 콘텐츠로써의 농촌을 발견하다

이성훈은 뚜렷한 목표는 없으나 청년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

해준다는 소개를 받고 A마을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A마을은 마을공동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정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농사일 외에도 영상, 목공, 공예, 제빵 등의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는 영상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경우, 농촌마을공동체에서 청년의 진로 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려는 A마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쉬면서 진로를 탐색해보려는 이성훈의 참여 동기가 부분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영상팀이 갖춰지지 않아 잠시 농사팀에서 농사를 돕고 있는 그는 이번 기회에 배운 농업 기술과 농촌에 관한 지식을 향후 콘텐츠로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콘텐츠로 농사를 한번 배워보자. 농사라는게 사실 한 사이클이 일 년 동안 돌아가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농사팀으로 전향해서 농사를 조금이라도 알아보고 그 이후에 영상 쪽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러다가 농사를 하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이성훈)

4.5.1.2. 창농을 위한 연대와 독립

B농장을 운영하는 박태주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청년 김호성의 창농에 대한 수요를 인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겪을 어려움을 고민하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청년 김호성의 창농이라는 목표로 비롯된 참여 동기와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농사일을 통한 소득 향상 및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기르는데 공동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 와있는 청년들은 농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고...농업을 통해서 역대 농부가 되고 싶은 청년들이예요...적게 벌어서 적게 먹고 소소하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말라고 해요 농업에 치열하게 농업을 통해 자기 원하는 거 이루고 취업해서 치열하게 사는 포레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만 오라고 해요” (박태주)

B농장의 프로그램 운영 취지는 직업으로서 농업을 추구하여 역대 농부가 되고자 하는 김호성에게 부합하였으며, 그는 프로그

램을 통해 구체적인 영농 계획과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청년과의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개개인의 경영체로 독립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저는 역대 농부가 되는 게 꿈이에요 당장 그 정도로 크게는 못하더라도 1,500평 규모 농장에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농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 독립을 하고 싶어요 농사도 하면서 가공도 하고 가까이에서 각자의 사업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믿어요” (김호성)

프로그램의 수요 취지와 공급 취지의 일치는 청년 수요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창농이라는 목표의 실행을 촉진하고 있었다. 현재 B농장 청년들은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농촌살이에 필요한 물건을 자급자족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며 지역주민 및 청년과의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가까운 곳에서 각각의 사업체를 형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향후 수익도 창출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대표님이 저희가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 청년 다섯이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어요 청춘상상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사진 스튜디오가 있어서 사과 제품사진 촬영을 하고 어르신들 프로필 사진도 찍어드려요.. 이곳에서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게 있으면 모셔서 강연도 해요”(김호성)

이와 같이 참여자의 기대와 농업법인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취지가 일치하는 경우, 일부 청년들은 연대하여 창농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마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창농에 대한 동기가 뚜렷한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시너지를 유형화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4.5.2. 운영 취지와 참여 동기의 불일치: 경험의 재구성, 옹크림과 홀로서기

4.5.2.1. 도약을 위한 옹크림

이번 절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참여 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경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에 대한 농촌의 현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도 참여자 스스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농촌 생활을 경험해보고자 6개월간 B농장에 인턴으로 활동했던 이지민은 인터뷰 당시 농장 생활을 하면서 생존으로써의 농업의 현장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대표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있어보니까 말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좀 달라졌던 게 **생존을 위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농촌에 대한 환상을 걷어버리고 생활로서의 농업이 무엇인지를 리얼하게 보여줬죠** 진짜 그냥 생활. 생존을 위한 농업인거죠..여기 온지 3개월이 넘었는데 정말 삶을 **농업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지민)

농사를 통한 생태적 삶의 실천을 추구하는 청년 이지민은 평소에도 농사와 관련된 모임에 참여할 만큼 농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실제 농업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B 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는 농업을 본업으로 삼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농장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다. B 농장은 과수 생산 농가로써 과수 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그는 본인이 추구하는 생태적인 가치 실현과 친환경 농법은 일반 농업 현장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이 경험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농촌에 대한 환상만으로 살아왔을 것이라며 B농장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향후 귀농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다 신중하게 구상하고 있다.

“거기를 다녀온 뒤에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게 무작정 시골에 가서 내 가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골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중략...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구나.. 쉽지 않은 개척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면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공동체 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도를 해보고 나서 결정하자고 생각해서 텃밭공동체를 하고 있죠..”(이 지만)

4.5.2.2. 홀로서기의 시도, 도움주기의 소망

또 다른 사례로 예비농업인으로서 청년의 마을 정착을 기대하며 A마을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도담은 프로그램에 참여한지 3개월 차에 접어들었던 당시 농사일 이외에도 A마을의 네트워크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사의 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거대하고 있는 판매처들이나 발효수업.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말려서 청도 담가보고 술도 만들어보고 쨌도 만들어보고.. 해서 하나의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을지 말이지요. 직관장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팔고 어떻게 배치해야 사람들이 잘 파는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죠”(전도담)

그러나 농사를 업으로 삼으려는 목표가 뚜렷했던 전도담은 A마을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그림책 만들기, 공예, 공연 등의 마을 공동체 활동보다는 예비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 기술과 전문적인 멘토링에 대한 기대가 컸다. 많은 고민 끝에 그는 5개월에 걸쳐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현재 인근에서 독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귀농 멘토인 마을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농지은행을 통해 마련한 1,500평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향후 그와 같이 기반이 없으나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청년 농업인의 정착 과정을 경험한 선배로서 후배에게 베풀고 싶은 역할이다.

“3년차, 4년차가 되면 제가 대표가 되어서 사회적 농업을 신청하려고 해요.. (중략..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걸림돌이 진짜 많아요. 영농기술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연고지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도시에 살던 애들은 그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래도 농사를 짓고 싶은 경우에 농사를 편하게 할 수 있기 위해 시골 정착에서 어려웠던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닐까 싶더라고요.”(전도담)

위와 같은 경우, 비록 참여자는 프로그램 운영 취지(공급)가 본인의 기대(수요)와는 달랐으나 농촌살이의 다른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귀농의 방향을 정립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농촌살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추구하는 귀농의 형태를 구체화하며 견고히 해가는, 농업을 자신의 가치와 삶 속에 연결시켜가는 노력의 과정이었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청년층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방향

지금까지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의 청년 정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험을 운영 주체의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운영 계기 및 현황, 참여 주체의 참여 계기 및 현황, 그리고 이들 간의 일치 또는 불일치 현상과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는 사회적 농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농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 포용의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서 농사 활동 기반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놓여있었으며, 이러한 경계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염려도 함께 존재했다. 특히, 청년층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이슈에 대하여, 운영 주체 중에서는 청년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청년 중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반면, 참여 주체인 일부 청년 농업인 중에서는 ‘사회적’이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프레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스스로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운영 주체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첫째, 본인의 취지를 전파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청년층의 농촌 정착과 진로 탐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청년 예비농업인의 수요의 발견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청년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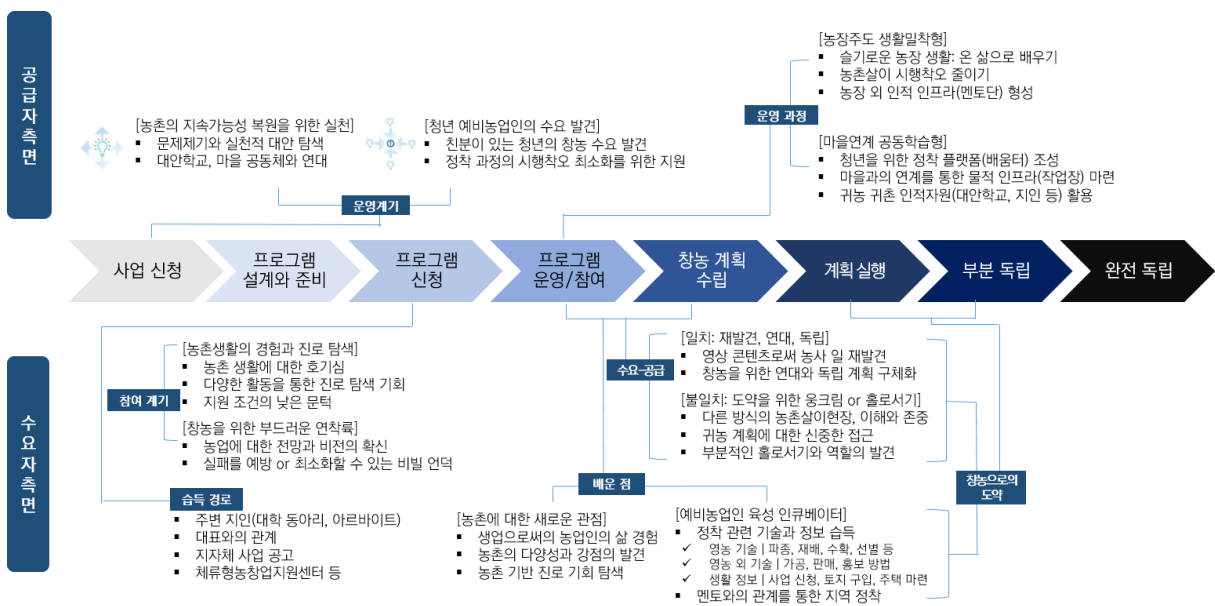
창농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이한 운영 취지는 곧 사회적 농업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활용하는 물적 및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참여 주체가 해당 농장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첫째, 농촌생활의 경험과 진로 탐색, 둘째, 창농을 위한 부드러운 정착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의 참여 계기(수요)와 프로그램 운영 취지(공급) 간에 일치와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데, 참여계기와 운영 취지가 일치하는 경우 농업과 관련하여 진로를 탐색할 뿐 아니라, 일부 청년은 연대하여 창농 계획을 구체화하여 시너지를 발휘하였다. 불일치하는 경우도 발견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추구하는 농촌살이와는 다른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창농 계획을 점검하고 본인의 가치관을 담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불일치하는 지점 또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거나 예비 농업인으로 준비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 농업인의 귀농과 정착 측면에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층의 사회적 취약 계층 낙인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는 청년층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 포함되었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참여자 대상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창농을 준비하는 청년층 당사자에게는 약자를 강조하는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여 시혜를 강조하는 방안은 오히려 청년층의 자발적인 동기를 감소시키며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청년 귀농 및 독립 지원은 외국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 사례가 가진 사회적 농업의 실천적 특징임을 강조하여 청년층의 귀농과 지역사회 정착을 사회적 농업 범위에 특화하여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 농업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방법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청년층 정착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강점은 운영주체와의 생활 밀착형 교육 방식을 통해 밀도 있는 멘토링과 컨설팅, 그리고 참여자의 수요를 고려한 유동성 있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멘토와 같은 운영주체로부터 영농기술뿐 아니라 농지원부 신청, 사업 신청, 농기계 임대 등의 행정적 도움과 지역 정착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은 기존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 대부분이 집합교육으로 이뤄지는 귀농귀촌 교육은 현직인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등의 실제 현장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는 점, 청년농업인 창농지원사업은 비승계농의 경우 지원 절차나 행정 등이 익숙하지 않아 문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점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은 창농을 탐색하는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정착하



<그림 2>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경험

는 단계까지 현장에 밀접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 주목하여 청년농업인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운영 취지와 수요자의 참여 동기의 불일치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일치의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나 운영 취지와 수요자의 참여 동기가 일치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매칭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 농장의 운영 취지나 주요 활동, 재배 작물 등을 소개하는 책자나 사이트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창농에 대한 동기는 농업에 대한 비전, 생태적 삶의 방식 실천, 연고지 등 다양하다. 청년의 참여 동기에 부합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선택은 창농 결심과 지역 공동체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농장 간 교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자 대부분이 다른 농장 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는데, 타 농장으로 1-2주간 교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본인의 가치관 및 목적에 부합하는 농장을 선택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청년층 간의 교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대나 청년 창농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나 사회적농업협의체 청년 분과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경험을 교환하거나 행위자간의 협력, 아이디어 활성화 등의 협력(Kanapik, 2018)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설계나 운영 과정에 청년층의 주체적인 참여가 자유롭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경영주(대표)로서 이들의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에 따라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실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청년층은 영농 기반이나 영농 경험, 연령 측면에서 이들의 위치가 불확실하여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의견이나 수요가 프로그램에 반영되기에 어려울 수 있다. 청년 농업인의 농촌 정착 과정은 향후 이들의 진로 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된 장기적인 사안이기때문에 참여자인 청년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들의 필요가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중간 또는 완료 시점에서 참여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주기적 및 적극적으로 개진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주 차원에서 기존의 귀농 청년의 지원 활동을 사회적 농업의 범주화로 인정하는 형태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농장의 경우, 지역 인근 농대 학생의 일손

도우미 활동을 운영해오다 참여 학생의 창농 수요를 발견하고 함께 고민하다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흥동면의 젊은 협업 농장 사례 역시 청년층의 교육과 농사 활동을 사회적 농업의 형태로 인정하였기에 사회적 농업 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현재 학계와 현장 등의 각 주체가 인식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사회적 농업 제도를 확대하기보다 외국 사례를 고찰하면서도 이미 현장에서 실천하는 국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담론을 통해 사회적 농업 운영 모델을 구축해가는 것이 사회적 농업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된다(Di Iacovo et al., 2014). 기존 농업 경영체의 자발적인 청년 농업인의 지원 활동을 사회적 농업 활동의 범주로 인정하여 정책적으로 포용하는 형태가 한국형 사회적 농업 정착이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9). 100대 국정과제.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2. 김미옥, 김은경, & 박신애. (2013). 농촌지역 지적장애 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44(4), 5-29.
3. 김정섭, 안 석, 이정해, & 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정섭. (2018).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홍성군 장곡면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25, 121-134.
5. 김찬양. (2017). 사회적 농업. *씨오쟁이*, 26, 7-9.
6. 농림축산식품부. (2018). (공지)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동 기관.
7. 농림축산식품부. (2019a).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동 기관.
8. 농림축산식품부. (2019b). 사회적 농업 육성. <http://www.mafra.go.kr/mafra/1358/subview.do>
9. 농림축산식품부. (2019c).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http://www.mafra.go.kr/mafra/1080/subview.do>
10. 농림축산식품부. (2019d).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시행지침. 동 기관.
11. 농림축산식품부, (2020).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시행지침(안). 동 기관.
12. 마상진, & 김경인. (2017).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 지원 프로그램 개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13. 이상진, 정은미, & 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창업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나주: 농촌경제연구원.
 14. 미래정책연구소. (2019). 사회적농업 과거와 현재 흐름. *농업농촌식품동향*, 22, 27-49.
 15. 사회적농업연구회. (2019). 사회적농업육성법 입법 추진 반대 성명서. 사회적농업연구회.
 16. 유리나, & 황수철. (2018). 다층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농업 실천사례의 특성 연구. *한국작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9-289.
 17. 윤선희, & 윤향미. (2018). 사회적농업 육성 및 인식확산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4(3), 65-89.
 18. 이정해.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실천과 지원 정책. *농정연구*, 63, 48-71.
 19. 임송수, & 임지은. (2017). 사회적 농업: 페러다임 전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안분석*, 26, 1-23.
 20. 전영현, & 임송수. (2016). 일본의 사회적 농업. *해외농업농정 포커스*, 196, 1-21.
 21. 통계청. (각 년도). *농업총조사*. 대전: 통계청.
 22. 황수철. (2018). 농업발전전략을 바꿔라. *농정연구*, 67, 14-79.
 23. 황보혜. (2019).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자리창출형 중심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Di Iacovo, F., & O'Conno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Università di Pisa. <http://hdl.handle.net/11568/132812>
 25. Di Iacovo, F., Moruzzo, R., Rossignoli, C., & Scarpellini, P. (2014). Transition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in rural areas: lessons from social farming.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20(3), 327-347. doi: 10.1080/1389224X.2014.887761
 26. Fazzi, L. (2011). Social co-operatives and social farming in Italy. *Sociologia ruralis*, 51(2), 119-136. doi:10.1111/j.1467-9523.2010.00526.x
 27. Garcia-Llorente, M., Rossignoli, C. M., Di Iacovo, F., & Moruzzo, R. (2016). Social farming in the promotion of social-ecological sustainability in rural and periurban areas. *Sustainability*, 8(12), 1238. doi:10.3390/su8121238
 28. Hassink, J. (2009).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i Iacovo, & D. O'Connor(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pp. 21-42). Firenze: Arsia.
 29. IFAD. (2010). *Rural Poverty Report 2011*. Rom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30. Kilpatrick, S., & Falk, I. (2001). *Benefits for all: How learning in agriculture can build social capital in island communities*. Centre for Research and Learning in Regional Australia.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rep=rep1&type=pdf> doi:10.1.1.467.7283
 31. Knapik, W. (2017). Community-based social farming (CSF) and its educational functions. *Problems of Small Agricultural Holdings*, 2, 17-31. <http://dx.doi.org/10.15576/PDGR/2017.2.17>
 32. Knapik, W. (2018). The innovative model of community-based social farming (CSF). *Journal of Rural Studies*, 60, 93-104. doi:10.1016/j.jrurstud.2018.03.008
 33. Sempik, J., Hine, R., & Wilcox, D. (Eds.). (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Loughborough, UK: Loughborough University.
 34. Smith, P., & Sanchez, A. (2011). Farming education: A case for social games in learning. In R. Schumacher(ed.), *Virtual and Mixed Reality: Systems and applications* (pp. 73-79). Berlin, Heidelberg: Springer.
 35. Tulla, A. F., Vera, A., Valldeperas, N., & Guirado, C. (2017). New approaches to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Social farming as an opportunity in Europe? *Human Geographies*, 11(1), 25-40. doi:10.5719/hgeo.2017.111.2
 36. White, B. (2012). Agriculture and the generation problem: rural youth, employment and the future of farming. *IDS Bulletin*, 43(6), 9-19. doi:10.1111/j.1759-5436.2012.00375.x
 37. Yin, R. K. (1994). Discovering the future of the case study. *Method in evaluation research. Evaluation practice*, 15(3), 283-290.

Received 05 May 2020; Revised 22 June 2020; Accepted 29 June 2020



Seong Ji Jeong is a Ph.D. candidate in a lab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Vocation Education and Workforce Development at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orkforce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SNU. Her research interests are education about agriculture including agricultural literacy, education for rural in-migrants and lifelong education.

Address: (08826)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orkforce Education,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mercyme12@snu.ac.kr
phone: 82-02-880-4896